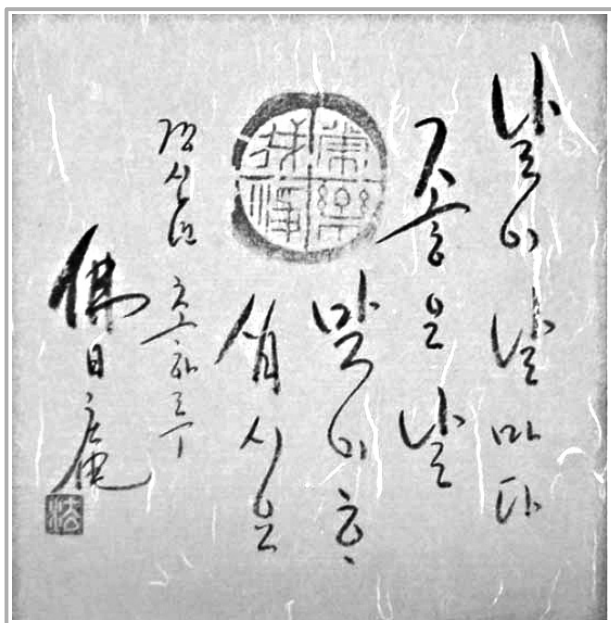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法頂스님 禪墨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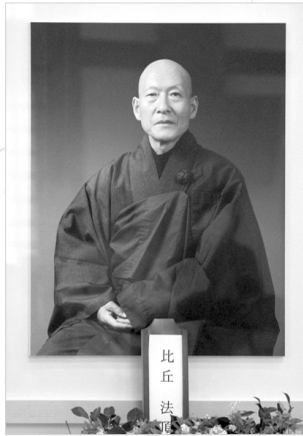
2011 / 2



추모법회

법정스님 1주기 추모법회

2. 28일(월) 11:00 길상사 극락전



무소유의 큰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맑고 향기롭게
회주 법정스님 1주기 추모법회가 2월 28일(음력 1. 26) 오전
11시 길상사 극락전에서 봉행됩니다.

음력 기준의 기재를 겸한 이번 법회에는 생전의 스님 음성과
영상, 추모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으로 진행되며, 길상사 경내
에서는 스님의 사진전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법정스님의 1주기 추모법회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
니다.

◆ 일시 : 2. 28(월) (음력 1.26) 11:00

◆ 장소 : 길상사 극락전 (설법전 영상 동시 중계)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1 / 2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	4	버리고 떠나기
이달의 법문 / 덕현	7	이사장 사직서
생명의 현장 / 전희식	10	늙은 소의 연설...
산골만화 / 정태경	13	새해 선물
채식으로 세상 보기 / 이성학	14	구제역은 인간 자신의 문제
생태 돋보기 / 최원형	16	역경계 순경계 - 나무의 '별떼기'
인도성지순례 / 신윤득	20	내 인생의 숙제 하나를 끝내고
맑고의 나눔 현장 / 홍정근	26	장애이동들의 건강 지킴이
사무국에서 / 연혜숙	31	결식이웃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맑고로 온 편지 / 박소희	32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분들께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임	33	1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8	서울모임
	43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6	2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48	지료후원과 녹색성장의 연관성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1년 2월 1일 발행 / 통권 192호 / 등록번호 리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원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원 /
인쇄처 농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t94.or.kr> E-mail : cleant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버리고 떠나기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法頂 (스님)

… (중략) …

뒷 등성으로 올라 오리나무 숲을 찾아갔다. 오리나무 숲도 잎들을 어지간히 떨쳐버리고 옹기종기 모여 겨울채비를 하고 있었다. 훗훗 벗어버린 나뭇(裸木)의 숲속을 거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나무들의 체온이 다가선다. 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는데, 빈 가지로서 있는 나무들에서 도리어 따뜻함을 감촉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 인간미를, 조출하고 맑은 가난을 지니고 사는 사

람한테서 훈훈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의 가난은 주어진 빈궁(貧窮)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와 그릇에 맞도록 자기 몫의 삶을 이루려는 선택된 청빈(淸貧)일 것이다. 주어진 가난은 악덕이고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선택된 그 청빈은 결코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이야기한다면 다들 코웃음을 치겠지만, 옛 우리네 선비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가꾸면서 맑고 조출한 삶을 넉넉하게 이루었던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투철한 인생관을 지니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삶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는 이런 선비 정신과 깨끗한 기상이 일상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몫을 더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과 비리로 얼썩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서가 불안정해서 삶의 진실과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

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만약 나뭇가지에 묵은 잎이 달린 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계절이 와도 새잎은 돌아나지 못할 것이다. 새잎이 돌아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이미 성장이 중단되었거나 머지않아 시들어 버릴 병든 나무일 것이다.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와 같은 상록수도 눈여겨 살펴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묵은 잎을 떨구고 새잎을 펼쳐낸다. 늘 푸르게 보이는 것은 그 교체가 낙엽수처럼 일시적이 아니고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잎이 말끔히 저버린 후박나무와 은행나무는 그 빈 자리에 내년엔 틈을 짝을 벌써부터 마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생태계의 자연스런 리듬일 것이다. 이런 리듬이 없으면 삶은 지루하고 무료하고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들 인간만

이, 특히 요즘의 우리들만이 자연의 질서를 등지고 거역할 뿐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려고 드는 데에 원초적이 문제가 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 것을, 단순히 계절의 순환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비본질적인 삶의 부스러기들을 털고 버림으로써 본질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암시요, 계시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의 교사로부터 배우려면 따로 학습이나 연습이 필요 없다. 더구나 과외공부 같은 것은 도리어 방해가 된다. 그저 아무 생각이 없는 빈 마음으로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흠을 가까이하면서 나무들을 매만지고 쓰다듬으며 가지 끝에 열려 있는 하늘을 이따금 쳐다보아야 한다. 하늘은 특 트인 무한한 우주 공간을 우리에게 안겨줌으로써, 어느 국지(局地)에 매달리거나 안주하려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 막힌 벽만 있고 특 트인 공간이 없다면 인간의 의식은 생기를 잃고 이내 시들어버릴 것이다. 여백은 이래서 본질을 새롭게 인식시켜준다. 의식의 개혁이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변혁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에서 찾아낸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의식의 개혁 없이 새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잎이 저버린 오리나무 숲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주 신선한 오후의 한때를 보낸 것은, 오늘 하루 내 삶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나무줄기를 쓰다듬으니 거칠거칠한 그 속에서도 여리디여린 부드러움이 있다. 거칠고 살벌한 이 풍진 세상에서도 우리 안에는 원천적으로 여리고 부드러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소식일까. 

… (중 략) …



이사장 사직서

德 賢 (이사장)

나는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의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것은 우선, 출가사문으로서의 최소한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것이 맑고 향기로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의 맑고 향기로운을 진실로 발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진실한 구도자이고 싶었다. 도를 얻고 못 얻고, 갖추고 아는 것이 맑고 적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물골과 누더기 안에 몰래 지닌,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도심(道心)이, 가진 모든 것이어서 그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수행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무거운 자신의 업과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빛바래고 닳아빠져 지금에 이르렀다. 솔직히 지금의 나를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아주 타락해서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사이비 수행승이 아닌지 모르겠다. 살얼음판 걷듯이 가야하는 구도의 길에선 깜박 하는 찰나 간에 스스로에게 속기 쉽다. 내가 길상사 주지를 하기로 한 것이, 그러다가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까지 된 것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핑계로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는지 지금도 가끔 자문하고 있지만, 갈수록 그랬었다는, 덕이나 수행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이 주체넘게 나선 것이라는 자책을 피할 수가 없다.

무주상(無住相)의 마음은 얼마나 내기 어려운가. 명리(名利)를 가까이하지 않기는 오히려 쉽지만 명리에 물들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지내면서 보니 진실로 명리에 물들지 않는 것은 명리에 추호도 물들지

않는 내면을 깨닫지 않고는 정녕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서 오십 보 백 보의 상대적인 우열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현실은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나 대안들 가운데서 가끔 실수도 하면서 차선이나 차차선(次次善)의 선택을 해가는 과정일지 모르나, 절대적 진리를 구하는 세계에서는 흑백이 분명하다. 정말 나는 맑고 향기롭게의 중심에 서서 모두를 향해 맑고 향기롭게 살자고 외칠 수가 없다. 사실은 그 주변에조차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다.

나는 맑고 향기롭게 불법(佛法)의 현대적 해석이며 대승승가공동체 운동의 시대적 구현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지금까지의 일이나 현재의 모습은 젓혀두고, 미래의 맑고 향기롭게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문명을 견인해 가기 위해서는……. 또, 나는 맑고 향기롭게에 진정 흔들림 없는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를 위해, 입적하신 법정스님을 맑고 향기롭게의 영원한 회주(會主)로 모시자고 제안했다. 만일 법정스님이 살아 계신 분이 아니어서 뭔가 적절치 않다면, 그 중심에 삼계(三界)의 대도사(大導師)이시고 사생(四生)의 자부(慈父)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맑고 향기롭게의 어떤 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사장이란 단지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간, 임원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이나 중재역을 맡은 임원의 한 사람일 뿐’이므로.


맑고 향기롭게 ‘창립자 법정스님의 뜻에 따라 그동안 범종교, 초종파를 지향하는 순수 시민단체로 운영되어온’ 것과 내가 스님의 입적이 가져온 위기상황에서 불교적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자고 한 것이 그렇게 완전히 모순되는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이 순수시민단체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님이 불교적인 용어를 쓰고 불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법정스님은 그러셨는가? 길상사라는 도량에 터전을 두고 회원의 대다수가 삼보에 귀의한 불자인 맑고 향기롭게, 자기 종교를 포기한 사람들끼리 모여 방향 없이 암중모색을 하면 순수시민모임이 되고, 그렇게 하면 세상과 자연이 맑고 향기로워지는가?

어떤 사람이 큰 자비심을 내어 자신의 대저택을 개방하여 누구라도 와

서 쉬고 쓸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을 그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고 그 집 문패까지 뜯어내야 하는가?

다행히 맑고 향기롭게는 정부관청에 불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맑고 향기롭게의 정관은 제2조(목적)에, ‘본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 17조(임원의 직무) 1항에는,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는 현 이사장이 맑고 향기롭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몇몇 분들의 정치적인 걱정¹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 저변에, 자신과 이 세상이 진정 맑고 향기로우려져가기를 바라는 본능보다 더 깊이 뿌리내린 바람과 기다림에 의해 끝내 지켜져 갈 것이다. 아니, 그 이름이나 형체는 덧없이 사라져도 거기 서린 비원(悲願)은 이 중생계가 다하도록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법정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비판 앞에 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맑고 향기롭게를 떠나고자 한다. 이 비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들춰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분란을 낳을 뿐, 나는 그 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충분히 안다. 정관에 길상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는 맑고 향기롭게의 이사직도 물론 절대 말지 않을 것이다. 노여움을 참기는 쉽지만 우리 안의 착각과 간교함을 고치기는 몹시 힘들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진정 겸손한 자세로 민주적 리더십과 팔로워십(followership)을 기르는 일,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화급한 일은 우리에게서 나는 이 역겨운 냄새를 지우고 스스로 저 꽃들처럼 청정해지기 위해 해야 할 통렬한 불도의 수행이다. 지금 누우치고 분발하지 않으면 뒷날의 통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를 향해 맑고 향기로우지라고 말하는가? 



늪은 소의 연설... 쇠고기 그렇게 맛있습니까?

전 희 식 (농부, 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

만약에 말이다. 그 옛날 1855년에 프랭클린 피어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땅을 팔라는 제안을 받고 깜짝 놀란 스쿼미시족의 시애틀을 추장이 그랬던 것처럼 구제역으로 살육 당하는 소·돼지를 대표해서 1970년대를 살았던 늪은 소 한 마리가 연설을 한다면 오늘의 구제역 사태를 두고 뭐라 한탄할까?

전 에 우리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살았습니다. 논에서 쟁기를 끌었고 무거운 등짐을 장터로 옮겼습니다. 진실된 노동 끝에 한 통의 여물을 받았고, 짚 몇 단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아 고단한 하루를 넘겼습니다. 일 년에 몇 번 제사상이나 명절상에 귀한 음식으로 오르긴 했지만, 한 번도 식탐의 재료가 되어 사시사철 고깃집에 걸려 있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게 뭐니까. 달포 사이에 소·돼지가 100만 마리나 죽임을 당해 언 땅에 파묻혔습니다. 일부는 생매장되기도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소주에 곁들여 우리를 뜯어 먹

던 이들이 굴착기 삽날로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재앙을 왜 죄 없는 우리 소·돼지에게 뒤집어씌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쇠창살 안에서...

자식도 이렇게 키웁니까

좁은 쇠창살 속에 가두어 놓고 평생을 사료만 먹이는 짓을 누가 했습니다. 90% 이상을 외국에서 사온 사료를 먹이면서 눈앞에 펼쳐진 7월의 무성한 풀밭에는 제초제를 뿌려대고 우리는 단 한 입도 풀을 뜯지 못하게 한 게 누구입니까.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짹짹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는 강제 인공수정으로 새끼만 빼내 가는 짓을 누가 했습니까. 구제역이 왜 번지는지 정녕 모르고 하는 짓들입니까. 대량 살육과 생매장으로 과연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나 하는지요? 예방 백신만 확보하면 이런 사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지금의 배합사료는 쇠고기 만드는 공장에 넣는 공업용 원료입니다. 우리는 원래 되새김 동물입니다. 위가 네 개인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정상적인 순환작용, 소화작용을 합니다. 대부분 유전자조작(GMO) 옥수수를 갈아 만든 이파위 배합사료는 단백질 덩어리와 다름없습니다. 1:1로 균형을 이뤄야 할 오메가6 지방산이 오메가3보다 무려 66배나 많은 옥수

수는 되새김질은커녕 목구멍을 넘기면서 흡수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살만 썩니다.

막사 구석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항생제들은 우리 몸똥이를 지탱하는 의족이자 의수입니다. 우리들에게 먹이는 항생제 양은 호주의 37배나 되고 미국의 근 3배나 됩니다. 우리는 늘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리면 반경 얼마 안에는 전부 몰살당해야 하는 이 비참을 누가 조성했습니까. 자식 같이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살 처분 당했다고 통곡하는 축산농가에도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정녕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양제와 항생제로 자

식을 키우는지 말입니다. 좁은 우리에 가두어 놓고 경제성이 가장 좋은 출하시기를 자로 재듯이 가늠해 가며 되팔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최대의 관심사 아니었는지, 우리를 자본재로 여기며 자본 회전 속도에 관심을 더 두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인구 14명당 소 한 마리...

싸구려 육식문화를 버려라

우리가 축사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 컨베이어 벨트 쇠갈고리에 걸려 빙글빙글 돌면서 바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그들은 알 겁니다. 때로는 목숨이 다 끊어지지 않은 채로 머리가 잘리고 사지가 조각납니다. 이런데도 자식처럼 키운다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거부합니다. 인간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럽다 못해 원혼이라도 살아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좁은 이 땅에 소만 340만 마리나 됩니다. 갓난애부터 노인병원 외상환자까지 다 합쳐서 14명당 한 마리입니다. 돼지는 1,000만 마리나 됩니다. 세 끼 밥 먹고 살자고 이렇다

면 또 모르겠습니다. 돈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과 싸구려 고기로 식욕을 부추기는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이렇고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내세우는 게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요?

소·돼지를 파묻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진정 파묻어야 할 것은 공장식 축산이며 돈벌이 목적의 산업형 축산입니다. 시급히 생매장해야 할 것은 과도한 육식문화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고 싶지 건강을 망치는 원흉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정 한 식구처럼 살고 싶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축산물’이 아니라 ‘가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제류의 원혼을 위로하는 초혼제를 지내고 속죄하기를 호소합니다. 참된 속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한 마리의 소가 구제역으로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 한 마리 돼지가 파묻히기 전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

※ 2011년 1월 한겨레신문과 프레시안에 실린 전희식님의 글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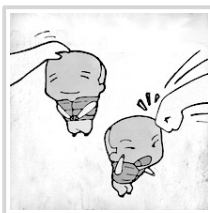


새해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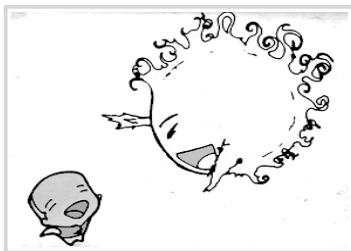
정태경



지난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를 맞이할 순 없다.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특히 칭찬은
인색하지 않게.



매년 새해 다짐을 해보지만
오래가지 않아 생각한 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해 다짐을 하는 것이다.

날마다 새날이 되는 것이다.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새해 최고의 선물이다.





구제역은 인간 자신의 문제

이 성 학 (기획실장)

구제역이 두 달 째 잡히고 있지 않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살처분된 짐승이 40여만 마리였는데, 다시 한 달이 지난 후 300만 마리에 다가서고 있다. 이제는 전·남북, 제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으로 확산되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왜 구제역이 발생했는가? 구제역 병원균이 침투하고 짐승들이 이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은 공장형 축산으로 인해 집단 전염병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같은 우제류(偶蹄類)인 자연 방목상태의 멧돼지는 아직 구제역에 걸리지 않고 있다.) 공장형 축산이 이루어진 것은 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넣은 값싼 사료를 먹여 키우고 있다. 보다 많은 고기를 생산하려고 한 것은 사람들의 고기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의 측면에서도 돈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 종사자가 늘어나거나 대규모 기업농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구제역 사태의 최종원인과 귀착지는 사람들의 과도한 고기소비와 이를 조장한 자본주의의 생산구조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짐승을 생매장하면서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구제역 트라우마(trauma)’ 또한 심각하다.

생매장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종교적인 천도재를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원인을 성찰하여 우리의 생


활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육식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 그
래야 점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공
장형 축산구조가 바뀌고 집단 전염
병인 구제역도 줄어들 것이다. 이
좁은 국토에 공장형 축산이 늘어만
간다면 아무리 방역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또 어떤 재앙
이 새롭게 닥칠지 알 수가 없다.

최근 국내외에서 고기를 끊거나
줄이자는 제도권 운동이 점차 고
개를 들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
하겐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총회
(UNFCCC)를 일주일 앞두고 개최된
벨기에 토론회에서 유명한 팝송 가
수이자 전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매
카트니는 육식을 제한하는 것이 기
후변화해결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고
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운동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엔기후
변화협약부간의위원회(IPCC)도 “less meat
=less heat(육류소비를 줄이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구호 아래 매주 하루를 채식의 날
로 정하도록 각국에 권장하였다. 그
리하여 벨기에 제 2의 도시인 헨
트시는 매주 목요일을 채식의 날로

선포하여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독
일의 브레멘시 역시 매주 목요일을
채식하는 날로 정하여 주 1회 채
식을 선포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의 사오파울
로시에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주1회
채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하버드, 옥
스퍼드, 컬럼비아, UCLA대학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이
환경친화적 식생활 확산과 영양학적
으로 우수한 한국형 전통식생활 실
천을 위해 2011년부터 학교급식에
‘주1회 채식의 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마산시청은 매월 첫째 월
요일을 ‘그린푸드 데이’로, 안양시는
구내식당에서 매주 월요일 채식식단
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동참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에 채식
식당이 생겼고, 세종대는 주 1회 채
식식단을 도입하였다. 이제는 종교
계와 사회단체도 고기를 끊거나 줄
이는 일에 동참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구제역은 결코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자신의 문제임을 깊이
성찰하고, 생활상의 변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역경계 순경계 - 나무의 '별떼기'

최 원 형

법명 심지명. 맑고 향기롭게 회원.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도시에서 생태 감수성 키우기」(랜덤하우스코리아)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너 무 춥습니다. 살아온 나이만 큼 겨울을 지내봤지만 올 겨울은 기억에 남을 만큼 춥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겨울이 춥긴 늘 추웠죠. 추운 게 겨울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삼한 사온이라 해서 사흘 추우면, 나흘은 날이 좀 풀리기도 했는데, 올 겨울은 참 매정하게도 추운 날이 꽤나 오래 동안 이어졌던 거 같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구제역으로 살아 있는 많은 생명을 땅에 묻고, 바다에서는 기르던 물고기가 추위로 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뼈가 덜덜 떨 리도록 시린 추위도 있었습니다. 어서 이 추위가, 이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안일한 태

도일까요….

이런 추운 날, 따뜻한 집 안에 있다 보면 문득, 저 바깥에서 하루 스물 네 시간을 꼼짝 않고 서 있는 나무가 참 대단하단 생각을 합니다. 잎사귀 하나 달지 못한 채, 앙상한 가지만으로 버티듯 있는 모습이 때론 처연하기도, 때론 용감 무쌍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추위를 견디는 방법에 대해선 이미 앞에서 단풍과 낙엽, 그리고 겨울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나무가 꼼꼼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도 때론 더위나 추위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무 줄기를 살피다보면 이따금 땅에서 가까운 밑둥쯤에 세로로 찢



겨울철 나무의 벌떼기
 땅에서 가까운 밑동 쪽에 세로로 찢어진 흔적을 벌떼기, 피소현상이라 한다.
 겨울철에 벌을 쫓면서 따뜻해지는 바람에 생겼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어진 흔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찢어 놓은 걸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인위적인 파괴 행위의 흔적이라기보다, 그런 자국의 대부분은 추위 혹은 더위로 인해 나무가 입은 상처랍니다.

추운 겨울이라 해도 며칠 동안 날씨가 풀려 온기가 지속될 때, 한낮 기온이 오르면 나무는 봄이 온 줄로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으로 물을 빨아올리게 됩니다. 봄이라면 의당 그렇게 물을 올리고 잎눈과 꽃눈에 시동을 걸며 화사한 봄의 채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한낮에 따뜻했던 기온도 밤에는 뚝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겨울철 추위 속에서 어쩌다 찾아온 따스함을
 성급하게 오해하고 반아들일 때 생기는 치명적인 피소현상.
 그것이 과연 진정한 따스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두려면
 엄동설한에 반짝이는 따스함을 봄이 온 걸로 착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가 다시 혹독한 한파가 닥치기도 할 테죠.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던 물관의 물은 그대로 얼어버리게 되고 물의 특성상 고체일 때 부피가 더 커지게 되니까 물관부위가 터져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겨울철 **별떼기** 또는 **피소현상**이라 부릅니다. 겨울철에 별을 쬐면서 따뜻해지는 바람에 생겼다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별떼기는 하루 가운데 별을 많이 받는 쪽 그러니까 나무의 서쪽 방향에서 주로 생깁니다.


별이 뜨거운 여름에는 특히나 별떼기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토양이 검을 경우 햇별이 직접 쬐이는 곳은 온도가 60℃ 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땅 표면 가까이 있는 나무의 조직은 피해를 입게 될 테죠. 뜨거운 열에 화

상을 입는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나무의 조직이 열에 의한 화상으로 피사되면서 이 역시 세로로 길게 찢어지는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 입은 곳에는 빗물을 따라 섞여 들어온 세균 등으로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피해를 덜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흰색 페인트나 흰 테이프로 나무 줄기 아랫부분을 둘러주는 겁니다. 간혹 나무 밑동에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나무가 입을지도 모를 상처를 미리 예방하자는 뜻이랍니다. 흰색은 빛을 반사하니까 아무래도 나무에 닿는 열로부터 나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자연이 위대한 스승인 까닭은 소소한 주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철 추위 속에서 어쩌다 찾아온 따스함을 성급하게 오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기는 치명적인 피소현상. 그것이 과연 진정한 따스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졌더라면 엄동설한에 반짝이는 따스함을 봄이 온 걸로 착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순경계와 역경계 모두를 말씀하셨지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나쁜 일이 생길 때도 모두 그 감정에 따라 춤을 출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잡고 어떠한 감정의 파고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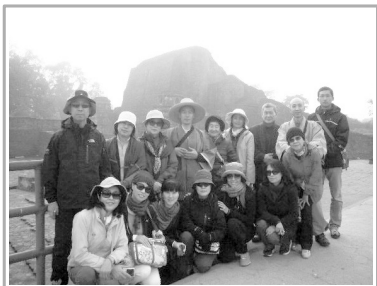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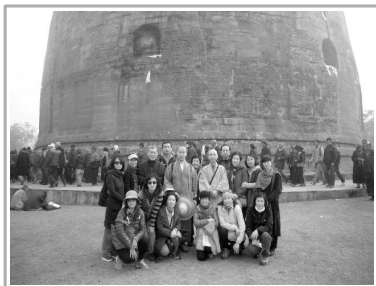
밑둥에 깊게 세로로 골진 나무를 바라보며 스며드는 감정, 순경계도 역경계에도 쏠림없는 평정심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숙제 하나를 끝내고

신 윤 득 (법명 秀雅林)



는 직업상 남이 쓴 좋은 글을 편안히 앉아 읽거나, 남의 글을 시시콜콜 따져들며 꼭 한 마디씩 했던 결과인지, 얼떨결에, 단 하루 만에 인도순례기를 써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큰 숙제(인도 성지순례)를 해결한 마당에 이런 과보(?)쯤이야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아 찬찬히 곱씹을 새도 없이 지난 13박 14일의 여행길을 거칠게 더듬어 간다.

12월 초, 우연히 참석한 일요법문

에서 길상사 식구들이 성지순례를 간다는 말을 듣고는, 마침 직장을 쉬고 있던 터라 같이 다녀오면 좋겠다 싶어, 급히 신청하였다. 힘든 순례길의 전조였나? 여행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연락도 받지 못해 여행의 일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단지 두 분 스님과 약간 면식이 있다는 것만 믿고, 1월 9일 인천공항에 나갔다.

자유로운 배낭여행은 몇 번 해봤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하

는 패키지여행이 처음엔 다소 낯설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기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난해(?)하다는 인도여행이기에 한편 의지도 있었고, 좋은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떠날 수 있음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며칠 전부터 온갖 집안일 마무리에 지쳤건만(이럴 때는 스님들이 어찌나 부러운지...) 꼭 두새벽에 출발하면서도 벅찬 기대감으로 피로를 참을 수 있었는데, 홍콩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스케줄 때문에 목적지 델리에도착하기까지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6시간. 시차까지 계산하면 자그마치 20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루를 꼬박 시달려 밤 12시가 다 되어 도착한 델리는 뿌연 스모그에 덮여, 짐시차림 남정네들의 희번덕거리는 눈빛에 잔뜩 에워싸인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겨울의 스산함이 가득 밀려오는 도시였다. 첫 숙소라고 찾아간 호텔은 오층짜리 건물이었지만 네 층은 아직 공사중이고 서둘러 한 층만 개업한,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냉방에서 방석

만한 전기장판에 겨우 의지하여 잠을 자야 하는 곳이었다. 내 룸메이트는 추위에 새벽녘까지 떨다가 첫날부터 감기가 들어 돌아오는 날까지 고생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금 따뜻한 봄날씨같은 다음 하루가 펼쳐진 것이었다. 맨 먼저 ‘인도의 국부(國父)’로 존경받는 간디의 화장터에 참배하였고, 붉은 사암으로 만든 레드포드 성과 사자한 왕의 성을 둘러보았다. 릅사와 오토바이와 온갖 차종의 승용차가 함께 달리는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아니, 이 정도면 인도가 듣던 것보다는 깔끔한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다닌 곳이 델리 시내의 가장 변화한 중심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얼마 안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도의 독립을 기념하여 세웠다는 ‘인도문’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하늘에 나는 독수리와 관광 나온 깔끔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스님께서 아이들 선물용으로 혈값에 대량 구입한, 허공에 새총처럼 쏘아 올리면 화살이 프로펠러처럼 돌면서 떨어지는 플라스틱 활 같은 장난감으로 망중한을 즐기며 여행의

느슨함을 누린 것도 잠시, 그날 오후 우리 성지순례의 첫 목적지인 바라나시로 떠날 열차가 내일이 되어서야 출발한다는, 참으로 암담하여 극히 인도다운 소식을 듣고는 모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임대료가 엄청난(실내 화장실 구비되고 히터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벤츠 버스를 막대한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마련해서 바라나시를 향해 나섰으나, 꼬박 밤을 새며 시야 5미터도 확보되지 않는 안개 속을 몇 번이나 역주행해 오는 차량들을 아찔아찔하게 피해가며 13시간을 달리고 달려 천신만고 끝에 ‘성스러운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는 도중 돌을 날라다 길을 보수하여 통과하기도 하고,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운전석까지 찌그러져 운전기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화물차를 현장목격하기도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두 분 스님의 기도와 노고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두 분 스님께 감사함을 가득 담아 합장

한다._0_ 그 와중에도 잠시 고단함을 잊기 위해 길가에 멈춰 서서 어설픈 노점에서 초벌구이한 질그릇 찻잔에 나눠 마셨던 짜이 한잔의 달콤함이 지금도 새롭다.

어쨌든. 안개를 뚫고 생사의 고비를 헤치며 바라나시에 입성한 우리에게 이후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장엄하고 유쾌한 순례길만이 기다리고 있었음은, 모두가 부처님의 지극한 가피였으리라.

1월 11일의 여정은 현지인들에게 ‘강가’라 불리는 성스러운 갠지스강에서 시작되었다. 약간 서쪽으로 기운 금빛의 햇살을 받아 참으로 아름답게 물결치던 강물은 따스하고 맑았고, 강폭은 꽤 넓었다. 강가의 화장터에는 누군가가 적나라하게 한생의 육신을 벗어 던지는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를 담담히 지켜보는 무심한 눈길의 사람들, 촛불을 켜 강에 띄우는 꽃등을 팔기 위해 스님 주위에 조롱조롱 모여들던 발 벗은 아이들, 강물에 몸을 씻거나 빨래하는 순례자들. 삶과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가 이제 막 잇닿아 함께하는 갠지스강의 풍경들이 마음에 너무 깊이, 그렇지만

편안하게 파고들었다. 반대편 강둑의 모래언덕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간다. 아, 저기가 우리가 건너 이르러야 할 피안의 언덕이 아닐까? 환희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반야심경 마지막 부분의 진언을 외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

다음으로 순례한 곳은 부처님의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鹿野園)와 처음 설법하신 곳에 아쇼카 왕이 세웠다는 다메크 스투바(높이 33.53m에 이르는 거대한 벽돌로 만든 탑)였다. 탑돌이를 한 후, 스님들을 따라 예불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독경하니 부처님을 처음 뵈는 것처럼 얼마나 숙연하던지…。 티벳 승려를 비롯한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도 발굴 중인 유적의 곳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간절한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가까이에 있던 사르나트 박물관에서 본 간다라 미술의 극치인 부처님의 초전법륜상. 주지 스님이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라 여기신다는 바람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이교도에 의해 손상된 부처님의 이런 저런 모습에 아픈 마음



이 더 컸다.

성도절(成道節) 다음 날인 12일, 석가모니부처님의 성도지 ‘부다가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일행에겐 크나큰 가피였다. 하늘은 화창했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전세계에서 모인 불교신자들이 한마음으로 순례하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쇼카 왕이 세운 마하보디사원에 모셔진 화려한 부처님의 모습은 저절로 무릎을 꿇게 하는 장엄함이 있었다. 잠시 보고 나올 수가 없어 우리 모두는 좁은 통로를 차지하고

좌정하신 스님 뒤에서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아쉬움이 남아 다시 탑 앞에서 법회를 올리는 동안 검은 개 한 마리가 염불하시는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떠날 줄 몰라 하던 모습도 아직 인상 깊게 떠오른다. 모든 만물이 부처님의 성도를 한마음으로 찬탄하고 있음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 같았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한 자리에 가장 오래 머무르시며 설법하셨던 독수리 모양의 영축산(靈鷲山)에 올라 안개 속에 지는 해를 안고 예불을 올리고 법문도 들으며 그 옛날 부처님의 생생하신 음성을 내 마음 속에 되새겼다. 참, 그곳에서 부산의 '맑고 향기롭게' 회원 두 분이 성지순례 오셨다가 스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내려오는 발걸음을 기쁘게 한 아름다운 인연이었다. 이후 순례지는 불교 교단 최초의 대학, 그리고 세계 최초의 대학이었던 엄청난 규모의 나란다 대학. 이어서, 안타깝게 터만 남은 포교의 중심지였던 죽림정사. 빔비사르 왕의 감옥 터는 저녁 어스름에 희미한 모습으로만 보았지만 스님의 재

미있는 배경이야기가 더해져 더 신비로운 순례처로 새겨졌다.

다섯째 날, 7시간에 걸쳐 쿠시나가르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도반들의 자기소개와 노래자랑이 있었고 길상사의 스타이신 두 스님의 열창도 이어졌다. 긴 간디교를 건너며 부르신 두 분의 100점짜리 노래에 사기충천, 이제 그 기세로 나머지 일정은 무사OK!

다음 여정은 부처님의 진신 사리탑에서의 예불, 아쇼카 왕 석주가 온전하게 남아있고 원숭이 왕이 부처님께 꿀을 공양 올렸다는 경전의 기록이 전해지는 원왕봉밀(猿王奉蜜)터, 아직 발굴 중이지만 엄청난 규모로 중간 중간의 감실에 50여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던 케샤리아 탑. 우리나라 농촌의 풍경이 오버랩 되던 평화로운 케샤리아 탑 주변의 해질녘의 모습, 스님을 따르던 스무 명의 아이들과의 단체 사진 촬영, 부처님께서 열반지 쿠시나가라로 떠나시며 다시 이곳을 볼 수 없음에 슬퍼하셨다던 그 바이사르의 황혼녘의 평화로움을 나는 오래 기억할 것 같았다.


여섯째 날 14일엔 부처님의 열반

지인 쿠시나가라를 찾았다. 자옥한 아침 안개가 부처님 열반지를 찾는 우리의 쓸쓸한 마음 같았다. 사라쌍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열반상이 모셔져 있는 열반당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와 말을 잊고 스님의 낭랑한 독경에 좌중은 모두 한마음으로 예불을 모시고... 이날 밤은 쉬라바스티 천축 선원에서 범정스님을 많이 닮으신 대인스님의 법문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였다.

마지막 순례길은 금강경의 설법지인 기원정사와 수닷타장자와 앙굴리말라의 집터, 카빌라왕국의 터를 찾아가며 재미있는 법문을 듣기도 하고 순례 중인 한국인 스님과 반가운 만남도 가졌다. 네팔 국경을 넘기 위한 긴 수속을 밟는 동안, 버스 안에서 주지 스님이 주도한 동요 메들리 타임이 펼쳐졌다. 모두 동심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해질 무렵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 무우수(無憂樹)나무 아래 이르러 행복한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순례길의 마지막을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마무리함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전과 조

금은 달라진 새로운 나, 부처님의 불제자로 거듭 태어나라는 의미였을까?

귀국하던 날, 한반도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덮인 깨끗한 서해 바닷가풍경 위로 유채꽃이 끝없이 피어있던 드넓은 인도의 평원과 눈만 마주치면 미소를 함빱머금던 아이들, 초라하지만 궁기를 풍기지 않던 부처님 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몰려드는 아이들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더없이 행복한 웃음을 짓던 스님의 자비로운 모습들이 아름답게 떠오른다. 사바세계의 중생이기에 순례 중에 좋고 싫은 분별도 없었지만, 스님께서 들려 준 법문처럼, 생애의 여행자가 되어 자유롭고 당당하며 장애를 두려워 않는 용기 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처음 만나 긴 여행의 동반자로 따뜻한 맘을 나누었던 열여덟 명의 도반들과, 14일간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멋진 두 분 스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_0_

2011. 1. 26 



장애아동들의 건강 지킴이

- 승가원 청소년 요가 활동 -

홍 정 근 (승가원 봉사팀장)



매 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햇님실에는 십여 명의 아동들이 용기종기 모여 앉아,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자들과 짝꿍을 맺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요가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지요. 요가 지도봉사 선생님이 앞에서 한 동작, 한 동작 아주 단순한 요가동작에서 때론 고난이도 동작을 시범을 보이고 가르쳐주면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자신이 따라할 수 있는 만

کم 진지하게 따라합니다.

청소년들은 바쁜 학교생활에서 잠시나마 주말 오전에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동들과의 마음나눔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가를 하는 동안 아동들이 집중하는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상 집중도는 이삼십 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율동 그리고 안마, 마지막에는 동적인 몸 상태를 정적으로 차분히 가다듬기 위해 다함께 누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절히 조절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요가자원활동은 2006년 7월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단순노동보다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시작 된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된 요가자원활동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을 하였고, 별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요가를 더

공부하며 봉사할 수 있는 심화교육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바쁘는지 시험기간, 학원공부, 집안 일, 때론 아프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이 불참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학교에 제출할 봉사시간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가원 시설에서도 주말행사로 인해 아동들이 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는 20여명의 청소년 봉사자로 구성되어 매월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봉사자를 두 팀으로 나누어 요가활동 후에 생활실에서





그림색칠, 찰흙놀이 등 미술활동을 시도하였는데, 신종플루로 생활실 출입이 통제되면서 중단되어 현재는 요가활동만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가활동과 더불어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청소년 봉사캠프와 야외 나들이 활동을 기획, 진행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소 청소년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기도 합니다.

지체장애아동들과 몸을 부대끼며 하나가 되어 단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서로가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

니다.

특히 1박2일로 진행되는 청소년 여름캠프에는 아동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그동안 요가활동에서 보지 못했던 아동들의 진솔한 모습과 뜻밖의 소질을 발견하고 감탄하거나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장애아동들이 청소년들에게 침을 뱉거나, 달려와 때려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주고 달래주고 놀아주는 모습에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순수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동들의 순수함과 청소년들의 순수함이 함께 어울려 서로


를 진정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참용성과, 노력,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단순한 표현 하나하나가 더 감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다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거나 본 모임의 회원이거나 길상사 신도인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봉사활동이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라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책임감을 가지면서 아동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는 봉사시간을 떠나 자원 활동에 대한 지속성과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10월 승가원 장애시설에서 본모임에게로 감사패를 수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를 드리자면, 요즘 복지시설마다 봉사자는 많은데 봉사꺼리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자원 봉

사처를 못 찾아 본모임으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요가봉사 프로그램 또한 진행상의 인원제한과, 생활실 공간의 제한 때문에 봉사자의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요가자원활동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재활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장애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더 애쓰겠습니다. 

□ 승가원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1996년 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복지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승가원은 장애인복지 전문법인으로, 불교계 최대 장애인생활시설인 승가원 자비복지타운과 서울시 최대의 장애아동시설인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장애인 그룹홈,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승가원 성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모임 청소년 요가자원활동은 2006년 7월 첫 시작하여 현재 매월 2회 자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외로운 이들, 결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결식이웃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연 혜 숙 (결식이웃 담당자)


연 말이면 이래저래 뒤를 돌아 보게 된다. 지난해 12월 2011년 결식이웃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보내온 실태조사서를 검토했다. 현 우리 사회의 실정이 여과없이 보여지는 모습들에 화도 나고 겁도 났다. 결식이웃 대상자는 독거노인, 노인부부, 장애인, 결식아동, 저소득층이다. 그나마 기초수급자로 정부지원을 받게되면 독거노인 월수입이 40만원 내외이다. 이 대부분이 월세를 내고 나면 얼마가 남아서 생활하게 될까? 이도 형편이 좀 나은 편이다. 자손이 있으나 형제, 자매가 부양부과자이면 지원을 못받는다. 그러면 노령연금 8만원이 고작 한 달 수입이다. 생활은 어떻게? 계산이 되질 않는다. 왜 대상자들이 본모임 지원에 짐착을 하는지 짐작이 간다.

어떤 어르신은 신규대상자에 넣어

달라고 동사무소로 본모임 사무실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하시고, 때론 이런 일이 업무를 보는 저로서는 난처하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지면으로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무슨 공식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령의 노모와 동거하는 자녀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알콜에 의지하며 노모를 구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노모를 내세워 지원을 받아 그 덕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한 번 이 일을 하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게 한다. 한편 미래의 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겁도 났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 분들을 위해, 내 삶을 위해 매 주 자원 활동가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장학생의 편지]

'맏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분들께

박 소 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3학년 박소희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작년에는 '맏고 향기롭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줬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했었는데 다행이도 또 다시 '맏고 향기롭게'에서 학비를 지원해주셔서 일 년 동안 즐거운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학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맏고 향기롭게' 분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감사의 말로도 이 고마움을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저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 비록 저는 졸업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후배들이 저와 같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러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맏고 향기롭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아낌없는 지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맏고 향기롭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올 한해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2010년 12월 6일

'맏고 향기롭게'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박소희 올림 

묘희원(1월 9일)

(소감: 한인섭 모듬장)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신묘년 첫째 달 회원님들 모두 장갑을 착용하고 두터운 옷차림이다. 맑고 향기롭게 본부 이성학 기획실장님은 감기로 코 밀, 입술 언저리가 부르터졌다. 김병진님이 결혼식 참석 문제로 봉고차량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저와 김광수 전 팀장님, 홍순선님이 카니발 차량 등 3대의 차량에 15명을 태우고 사당역을 출발했다. 그동안 다른 회원님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처음 운전해보니 길이 눈에 익숙치 않다.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를 타고 가다 틀게이트에서 국도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직진하는 관계로 15분가량 늦어졌다.

묘희원에 도착하자 인천에서 오신 조세환님의 가족 4명과 송산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시는 운영보님이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하셨고, 전전 팀장 이용조님이 3년 만에 다시 합류하여 20명이 봉사활동을 하였다. 원래는 실내 청소와 말동무 되어드리기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눈이 많이 와 남자 회원들은 노인분들이 이동하

기 불편하여 눈과 얼음을 치우기로 하였다. 인천 묘사찰 보광회 회원들과 함께 삽으로 1인용 손수레에 눈을 퍼 담고, 녹슨 도끼와 망치로 미끄러운 얼음을 깨어 공터로 운반했다. 여성 회원들은 불이원과 묘희원, 상락원에서 어르신들과 장애 어린이가 말벗 되어주시기와 청소를 하였다.

점심 식사 후, 법당에 모여 본부에서 준 신년 달력을 배부하였고, 2월에도 구정관계로 둘째 일요일에 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입회원님의 소감과 총무님으로부터 회비사용내역 및 1. 22(토) 김광수님의 아들 결혼식 그리고 조계사 부근 동덕갤러리에서 백지현 회원님의 사진전시회 공지가 있었고, 오후 작업을 마친 뒤, 회원 4-5명이 사진전시회에 참석하였다.

개인 전시회가 아닌 합동전시회여서 다양한 사진을 관람하게 되었다. 어떤 사물을 단순히 카메라에 담았다기보다 작가가 관람객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애쓴 흔적이 보였다. 백지현님의 사진작가로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맑고 향기롭게의 왕성한 봉사활동을 기대하고 회원님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

진원선원(9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이금재 모듬장)

늘 하던 것처럼 8시 20분에 경북궁 건춘문에서 모여 진원선원으로 출발했다. 차량 안에서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내자니 금새 진원선원에 도착했다. 오전에는 감자 껍질을 벗기고, 멸치도 다듬는 등 주방 일손을 도와드렸다. 점심 후 사무국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회의를 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공연을 했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척 염려된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함께 한 시간만큼은 어르신들이 우리들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다. 신년이라 바쁜 일이 있어서인지 모두 7명이 참석해주셨다.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담당: 홍선주 모듬장)

● **1월 6일** - 오늘의 히로인 이영혜 할머니. 언제나처럼 고향환 할아버지의 우렁찬 민요에 어깨를 들썩이는 할머니들. 새로운 할머니의 등장에도 다들 눈이 동그래졌다. 급기야 흥에 겨워 춤판을 여신 이영혜 할머니. 그동안

참석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첫 참석에 흥론을 날리신거다. 노래 부르기 시간에도 사양하시는 듯 하더니 마이크를 잡으신 후엔 계속 부르시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시간관계상 다음 주로 미루었다.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셔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 이영혜 할머니 파이팅!

● **1월 13일** - 수락양로원 가수 왕종선 어르신. 항상 노래 부르기 시간 첫 테이프를 끊으시는데 지난주부터 '홍도야 울지 마라'에 도전. 다른 노래보다 부르시기가 힘드신지 음이 불안하다.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꼭 마지막에 한번 더를 청하신다. '님' 역시 왕할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가 빛을 발한다. 왕할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래 열정에 박수.

● **1월 20일** - 얌전한 모습에 수줍은 웃음을 보이시는 백경조 할머니. 노래 실력이 출중하신데도 여간해서 참석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참석하셨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업된다. 백경조 어르신의 흥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든 때문. 다른 어르신들의 독창에도 다 맞춰 부르시더니 할머니 차례엔 마이크 잡

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신다. 그래도 오늘은 용기를 내고 또 내고…. 눈 감으시고 열창이시다. 연속 3곡. 시간이 모자랄 뿐. 백경조 어르신은 앞으로 계속 참석해주세요. 쪽~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임진성 모듬장)

- **서은영:** 어르신 한 분이 눈이 내린 길을 걷다 미끄러져 고생중이시다. 어르신들께서 저마다 김장김치를 너무 잘 먹고 있다고 하신다. 월곡동에 사는 김OO 할머니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전화비를 못내 최근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동사무소 복지사에서 2011년 밑반찬 지원 신규 및 변경대상자를 접수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르신께서 직접 맑고 사무국으로 찾아가 반찬지원을 부탁드리고 가셨다고 한다. 홍정근 팀장이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주고 집에까지 모셔드렸다고 한다. 겨울철 날씨도 차가워지고 난방비도 너무 부담되어 다들 걱정이다.
- **임진성:** 월곡동에 사는 윤OO 어르신께서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이다.

생활도우미가 하루 4시간 와서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은 있지만 잘 찾아오지 않고 가끔 공과금만 해결해주고 간다고 한다. 그런데 가족들 재산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이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밑반찬 지원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실태조사와 몇 번의 전화상담 후 밑반찬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라 지원을 하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밑반찬 봉사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담당: 권미자 모듬장)

- **1월 3일 하호경** - 안국동 조계사에 다닌 지 수년 동안 불법 공부한답시고 오로지 자신에 집중했다. 무엇을 위한 배움인지 어렵קות이 의문이 들 무렵 뒤늦게 절에 다니시는 도반의 실천을 보았다. 기초교리를 듣고 바로 봉사를 시작한 그분을 보곤 아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실천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도반을 따라 나섰다. 노인복지센터는 생각보다 많은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단단히 마음먹고 온 내 꼴이 무색했다. 도반 보살님이 사오신 호도과

자랑 맞난 복지관표 커피 마시고 방
실방실 웃으며 식탁정리 세 시간 하
고나니 끝이란다. 나눔의 의미를 되
새기며 많은 어르신들이 모습으로 내
게 알려주신 사실, 누구도 막지 못할
생노병사의 운명을 무엇으로 아름답
게 채울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본다.

● **1월 17일 강경화** - 오래전 맑고 향
기롭게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한 적
이 있다. 52년만의 한파라는 추운 날.
칼바람을 뚫고 안국동 서울노인복지
센터를 가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셨다. 배식, 설거지, 잔반처리, 어르
신들 식사 도우미 등 3시간 정도만
일하면 된다고 했는데, 웬걸 역시 쉬
운 일은 없었다. 쉽지 않아 오히려
더욱 소중했는데 함께 일했던 다른
보살님들이 새삼 대단해 보였다. 양
평, 부산 등 먼거리에서 오신 분, 나
이 많으신 봉사자분들을 보면서 봉
사라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느꼈다. 그 진정
성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
꺼이 하시는 분들을 보며 행복했다.
그런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다는 것도 내 복이구나 라는 생각
도 해보았다. 이제 겨우 2번 나가 일

해 본 햇병아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
기를 하려니 민망하고 쑥스럽다. 이
곳과 오래도록 인연을 맺고 싶고, 초
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홍정근 봉사팀장)

● **1월 9일** - 새해 첫 요가 프로그램이
신정연휴 관계로 둘째 주에 진행되었
다. 둘이 같이 하는 요가동작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동작위주로 했다.
이제는 아동들이 제법 요가동작을 따
라할 줄 안다. 아동들이 방학기간동
안 눈이 자주 오고, 날씨가 차가워 밖
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생활실내에서
만 웅크려있었다고 한다. 눈썰매장이
라도 다녀와야 될 것 같았다.

● **1월 16일** - 서울 기온 영하 16도. 너
무 추운 날씨다. 그래도 승가원 아이
들의 건강을 위해 어김없이 요가자원
활동은 시작되었다. 봉사자들과 짝을
맺기 전에 아이들은 나름대로 몸 풀
기를 하였다.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그동안 뭉쳐진 근육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요가활
동 참여 아동 중 가장 모범적인 성진
이는 시키지 않아도 각종 동작을 척

척 해낸다. 성진이는 요가 천재다. 아무리 시간에는 아동들이 함께 요가활동을 해준 오빠, 형, 누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끝난 후에도 매트 정리까지 최대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

● **1월 21일** - 승가원 아이들 12명과 청소년들이 1:1 짝을 맺어 태릉 이스턴캐슬 눈썰매장을 다녀왔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오히려 청소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리고 신나고 씩씩하게 눈썰매장을 마구 달리며 즐거워했다. 아이들 따라다니느라 엄청나게 고생한 12명의 청소년자원봉사자들. 오랜만에 따뜻한 햇볕이 가득 비추어 아이들에게 아주 신나는 추억이 된 것 같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담당: 최두리 모듬장)

● **6, 7일** - 새해 첫 밀반찬 자원활동을 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지만 이곳에서는 활기차게 일한다. 이틀간 할머니와 손자, 엄마와 딸 그리고 든직한 고등학생까지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런 동행이

쪽 이어졌으면 한다.

● **20, 21일** - 기록적인 수은주. 겨울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삼한사온은 사라지고 새해 들어 20한(寒) 정도 되는 듯하다. 그 여파가 조리장에도 확연히 나타나 자원활동가 분들이 많이 줄었다. 준비해야 할 가구수는 정해져 있고, 나오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이 분들마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금만 머무르다가 나오실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총 371가구, 단체 1곳)

- 1제주 - 시금치나물, 오징어실채
- 2제주 - 새송이장아찌, 두부조림
- 3제주 - 멸치볶음, 숙주나물
- 4제주 - 돌자반튀각, 무나물, 선물꾸러미(설)

- 결식후원금 12/1 ~ 12/31
27,849,137원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맑고 향기롭게 김상화 장학생’ 후보 추천 받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의 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소 성적은 뒤처지더라도 착하고, 성실하고, 밝은 심성의 학생, 그러나 넉넉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해야 하는 학생이 혹 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기꺼이 추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 정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천 내용의 점검을 위해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되면 부득이 학비 지원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 대상: 고등학생 (30명 내외)
- 장학 기간: 1년 (4/4분기마다 각 학교 외부 장학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됨)
- 장학 내용: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한 학비 전액
- 추천자: 맑고 향기롭게 회원,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 ① 추천서 - 추천자 성명, 주소, 연락처, 회원 여부 명기, 학생의 생활 형편 및 성품, 성적, 추천 사유를 자세히 기재
 - ② 학생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본, 초본 각 1통,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성적증명서) 연락처, 실제 거주지 주소, 학년, 반 명기
- 추천서 접수 마감: 2011년 3월 25일(금)
- 장학생 선정 발표: 2011년 4월 1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2011년 4월 9일(토)
- 문의처: 02-741-4696~7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명의 청소년과 함께 한
참 멋진 신년음악회**

〈소녀〉, 멋진 신년음악회였습니다. 2011년 들어 서울지부에서 새롭게 벌이는 맑고 향기로운 문화 나눔활동, 〈동그라미 사랑 나누기, 하나〉에 큰 관심과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9일(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니르마나 오케스트라단 주최, 신년음악회 〈소녀〉 공

연에 모두 20명의 눈 푸른 청소년이 함께 했습니다. 2010년도 맑고 향기롭게 장학생과 그 친구가 8명, 결식후원 가구 청소년이 2명, 월곡청소년센터 이용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10명. 당초 참석하겠다는 학생은 28명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경우가 8명이나 되어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장학생 중 교통사고가 난 학생도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였다니 얼른 떨치고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음악회는 비발디의 “조화에의 영감” 협주곡 사단조 OP.3 NO.2 작품578 중 1, 2, 3악장의 연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브루흐 신의 날, 첼로 연주와 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 등이 이어졌습니다. 수익금 중 일부는 극심한 노동과 성 착취에 시달리는 에티오피아의 여성과 소녀를 돕는데 쓰겠다는 뜻도 담았던 이번 음악회는 그래서 더욱 뜻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아이들이 어떤 눈으로, 어떤 귀로, 어떤 가슴으로 음악회를 만났을 지 참 궁금합니다. 너무 이른 호기심일까요? 여하튼 우리가 함께 뿌린 작

고 여린 씨앗이 이내 튼실한 나무로,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거란 믿음으로 동그라미 사랑 나누기 둘, 셋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번 동그라미 사랑 나누기 하나, 니르바나 신년음악회의 청소년 초청 문화 나눔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은 모두 27분이며 총 후원금액은 119만원입니다. 하여 20명의 초청 청소년 관람료 60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 59만원은 두 번째 문화 나눔 활동시 활용해 쓰고자 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 주말 선 수련회 안내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는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갖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가 함께 열어가 뜻 깊은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

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 매월 셋째 주말 (2.19~20)
- 구참반 : 매월 넷째 주말 (2.26~27)

선 수련회 아침공양 자원 활동 모집

매달 셋째·넷째 주말에 열리는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 참가자들을 위해 아침공양 준비를 거들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새벽에 불에 참석하시거나 집이 가까우신 분들 중 마음을 내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모집인원 : 3명 내외
- 하시는 일 : 과일 깎기, 간단한 반찬조리
- 일시 : 매달 셋째 넷째 일요일
- 문의 : 02-741-4696/7 香羅 모아라

소식지 발송 봉사자 모집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달 초(3-5일) 사이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길상사내 '설법전 또는 소강당' 에서 행해집니다.

매월 5,000여부를 발송하며, 평균 1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때론 일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할 수 없었던 분이시면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인드라마생협 연대 물품구매 중단

본 모임은 그간 불교생협연대에 단체회원으로 등록, 회원님들의 물품구매를 권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낮은 호응에 급기야 올해 불교생협연대가 해체되어 부득이 단위 생협인 인드라마생협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모임의 특판 형태 물품 구매가 인드라마생협과는 연대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2010년으로 본 활동을 중단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바랍니다.

법정넷이 개편되었습니다.

법정스님 추모 페이지였던 법정넷(<http://www.beopjeong.net>)이 추모사이트를 탈피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인물페이지로 기획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행자로서의 스님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자, 생태주의자 등 다양한 모습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은사 효봉스님, 맑고 향기로운 사람

들 같은 내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실 분은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것은 법정넷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만남의 날 분기에 한 번 실시

작년까지 매 달 한 번 이루어졌던 회원만남의 날이 2011년에는 분기에 한 번(3, 6, 9, 12월)으로 조정됩니다. 시간 요일 등 자세한 것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이메일 변경

이메일 주소가 wlotus94@hanmail.net에서 clean94@hanmail.net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식이웃을 위한 자원 활동가 모집

멀리 있는 행운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반 ~
- 밀반찬 배달 자원활동: 매주 금요일 오후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기존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는 2010년 매주 의류재활용 리폼에 자원

활동 해 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의류재활용 봉사모임>으로 거듭났습니다. 재정비된 봉사모임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봉틀 배우기는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청바지나 남방, 안입어 버리려 했던 한복을 모았다가 서울지부에 기증하여 주시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알뜰시장을 통해 판매도 하고, 필요한 시설에 기증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 / 신참반: 2월 19~20일(셋째 주말) / 구참반: 2월 26~27일(넷째 주말)
- 회원만남의 날은 분기(3, 6, 9, 12월)에 한 번 실시됩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금요일(2월 10, 11, 17, 18, 24, 25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첫째주인 2월

3, 4일은 설 연휴로 쉽니다.)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2월 13일 /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 (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설 연휴관계로 이번달은 둘째주에 합니다.)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2월 13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동 / 1, 2, 3, 5주 목요일(2월 10, 17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첫째주인 2월 3일은 설 연휴로 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2월 7, 14, 21, 28일), 매월 첫째 수요일(2월 9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수요일 봉사는 설 연휴로 2월 9일 합니다.)
- 송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2월 13일, 20일) / 오

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2월 14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무실
- 국군복제병원(고양시 덕양구) 내 법당 점심 조리봉사 / 매월 둘째, 셋째 일요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2월 9, 16, 23일) 오후 1시 30분(삼투,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듦)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한방비누는 설 연휴 일정조정으로 쉽니다.)
-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는 2011년부터 매주 의류재활용 리폼에 자원 활동해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활동〉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2월 23일(매달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 소식지 발송 / 2월 7일(우편분류 1월 28일)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2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9 / 16 / 23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9 / 16 / 23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10 / 17 / 24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17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10 / 24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10 / 17 / 24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11 / 18 / 25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11 / 18 / 25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11 / 18 / 25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11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12일(토)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8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5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5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5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6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2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설명절 결연세대에 성금과 성품 전달
- 경남지부에서는 결연세대를 후원하고 있는 자원활동자분들과 결연세대 10가

구를 방문하여 정성가득 준비한 성금과 쌀, 과일, 선물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마음 따뜻한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2월 16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2월 22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2/12, 19, 26일)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보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2월 10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2월 11, 25일)/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2월 11, 18, 25일)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2월 23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

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2월 8일(화) 19시 성주사



광주모임(062-236-3129)

2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 3주 금요일(2월 4일, 18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조리 시간: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2월 대상도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 독서지도: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 2월 10일(둘째 목요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사무실 법정기념관 (※ 내용 중에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 건강을 위한 티벳명상
매주 둘째 금요일(2월 11일) 오후 7~9시. 지장왕사 4층 법당
명상지도: 나무 법사



대구모임(053-753-8883)

2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1월 21일 사랑도에서 '첫마음' 편집위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편집위원 전원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첫마음'을 만들면서 나누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친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덕유산 자연문화유적탐방
2011년 첫 자연문화유적탐방으로 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 눈으로 유명한 산이라 처음부터 긴 산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무주리조트 곤돌라를 타기 위해 2시간이상 대기하면서 정작 산행 시간은 1시간도 되지 못했습니다. 날리는 눈발과 성인 무릎 이상으로 쌓인 눈들이 짧은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눈이 내려 조심조심 왔습니다. 김천 부근부터 눈이 없어 우리나라가 정말 작지만 넓은 나라구나 하면서 산행을 마쳤습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매주 수요일(9 / 16 / 23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18일) 오후 7시 (예정)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12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15일(화)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1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12일) 오후 6시 30분



여기는 길상사

<입춘기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듯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추위조차 서서히 물러갈 때가 오고 있습니다. 벌써 입춘입니다. 길상사에서는 입춘기도를 2월 4일 오전 10시에 봉행합니다. 오셔서 주지스님의 소참법문도 듣고, 입춘대길(立春大吉)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초 10일기도>

새해를 여는 정초기도 입재가 2월 5일입니다. 열흘간 극락전에서 봉행하며 아래 기도시간을 참고하시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 2월 5일(음 1월 3일)~2월 14일(음 1월 12일)
- 시간: 새벽 4시 - 다라니 정근
사시 9:30 - 다라니 정근
오후 2시 - 자비도량참법
오후 6시 - 다라니 정근
- 문의: 종무소 3672-5945

<동안거 해제 법회>

매서운 추위를 견딘 이들에게 벌써

해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흘러서 맑아졌기를 바랍니다.

동안거 해제법회는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 극락전에서 합니다. 또한 90일 관음기도를 회향하며 천도재도 봉행합니다.

<경전반 「금강경」 개강>

총무 정산스님을 범사스님으로 모시고 2월 11일부터 경전반이 열립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낮 2시~4시
- 기간: 2월 11일부터 3개월
- 내용: 금강경
- 대상: 기본교육을 수료하신 분
- 문의: 교무실 3672-0036

<불교입문강좌 봄학기 개강>

불교를 새롭게 접하여 신행 및 수행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입문강좌 봄학기가 3월에 개강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듯이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길상사에서 첫 발을 내디뎌보시기 바랍니다.

- 개강: 3월 9일
- 수업일시: 주간반 - 수요일 오후 2시,

야간반 - 수요일 오후 7시 반

- 기간: 3월 9일~5월 25일
- 문의: 교무실 3672-0036

< 지정전 천일기도 700일 회향 및 800일 입재 안내 >

지장전에서 봉행하고 있는 천일기도의 700일 회향 및 800일 입재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 천일기도 700일 회향일:
2월 11일(음 1, 9)
- 천일기도 800일 입재일:
2월 12일(음 1, 10)

< 새신도 교육 >

매주 일요법회 후에는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새신도 교육'이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후 1시~2시 30분에 설법전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
1주차: 불교란 무엇인가?
2주차: 예불문 공부
3주차: 나를 깨우는 108배
4주차: 생활 속 수행
5주차: 스님과의 대화
- 지도: 총무 정산스님

<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2월 12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거사리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2월 3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2월 21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2월 14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2월 22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2월 7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지로후원과 녹색성장의 연관성

이상 한파로 여기저기서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지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우리 몸과 마음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마스크에서는 이번 한파의 원인으로 북극진동과 지구온난화를 꼽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산이 감소하면 해수면이 10~25cm 상승, 남태평양 섬나라가 물에 잠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기온상승에 따른 중국의 황사 피해와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은 녹색성장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시나요?

생활 속에서 전력과 수도물의 소비를 줄이고, 개인용 컵 등 1회용품 사용자제와 이면지 사용 등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모임에 후원하는 방법 중에서 지로용지 후원을 CMS 자동이체로 바꿔보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녹색성장과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달 평균 지로용지가 1,500여장 발송되는데 실제 후원되는 확률은 1/3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질 좋은 종이가 아깝게 버려진다는 얘깁니다. 가끔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아 회계담당자가 일일이 본인을 확인해야 하고 전산처리과정에서도 오류발생빈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지로 한 장 받을 때마다 서비스 원가에 비해 230원 정도 손해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지로용지에서 CMS로 후원하면 소식지 우편작업 봉사자들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인쇄비 외 운영 경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작고 세심한 실천이 지구온난화와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